

노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 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

최 옥 금(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1. 서론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빈곤 문제 가운데 노인은 가장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인구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가 다른 집단에 비해 심각하지 않은 외국의 상황과는 대조적인데,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한 독거노인의 증가, 전통적으로 노인을 부양하던 가족의 책임 감소 등 이들이 적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의 요구는 증가한 반면, 현실적으로는 국민연금의 미성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한 노인 적용대상의 제한, 경로연금 급여수준의 비현실성 등 관련 정책들이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들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 빈곤의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 빈곤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단순히 노인빈곤의 실태를 기술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대부분인데, 이를 통해 빈곤 노인의 특성을 파악할 수는 있으나 이들이 빈곤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 또한 노인 빈곤의 원인을 분석한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여성 노인의 빈곤에 초점을 맞추어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도 존재하나 이들은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를 충분히 투입하지 않았으며, 횡단자료 분석을 통해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동태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노인 빈곤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 다루지 않은 설명변수를 투입하고, 횡단분석과 시계열분석의 단점을 보완한 패널분석(panel data model)을 활용함으로써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를 살펴봄에 있어 성별과 배우자 유무라는 특성에 따라 살펴볼 것인데, 이는 노인이 동질적인 집단이라기보다는 이질적으로 구성된 집

단이라는 것에서 기인하며, 여러 기준 중 성별과 배우자 유무가 빈곤과 관련하여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2. 선행연구 고찰

선행 연구에서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제시한 것은 크게 노인이 속한 가구의 특성,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현재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 과거 노인의 직업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최현수·류연규, 2003; 홍백의, 2005; McGarry·Schoeni, 2005; McLaughlin·Jensen, 2000; Rupp·Strand·Davies, 2003; Schiller, 2002). 선행 연구에서는 먼저 노인이 속한 가구의 특성으로 가구유형, 가구의 자산 정도, 거주지역이 노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적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이 속한 가구의 특성별로 빈곤율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과, 노인 외에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을 경우 이들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노인 빈곤이 결정된다는 것에 주목하여 다른 가족 구성원과 동거하는 노인이 아닌, 노인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노인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보다 빈곤층이 될 확률이 낮으며, 자산이 많을수록 빈곤에 빠질 확률이 낮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선행 연구에서 지적하는 것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건강상태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이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빈곤율이 높게 나타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노인의 건강상태도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빈곤층이 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세 번째 요인은 현재 노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지의 여부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노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빈곤율이 2배 정도 낮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행 연구에서는 노인의 과거 직업력에 관련된 변수가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하는데, 직종 및 정규직 여부가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제시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1차~7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1차 년도에 55세 이상인 노인, 특히 노인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에 속한 노인을 분석 대상으로 상정한다. 5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한 이유는, 현재 고령자 고용촉진법과 통계청조사에서 노인과 비노인의 기준 연령을 55세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또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빈곤 여부는 4차년도 가구자료에 수록된 가구의 총소득을 균등화지수로 조정한 균등화소득을 활용하여 중위소득을 구하고, 이 중위소득의 40%에 해당하는 소득을 빈곤선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2000년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중위소득의 40%에 해당하는 소득액을 빈곤선으로 이용하고, 2000년 이외의 연도에 대해서는 각 년도 명목소득을 2000년 물가기준 소득으로 전환한 후 2000년의 빈곤선을 그대로 적용하여 가구의 빈곤여부를 판별하였다. 개인의 빈곤여부는 해당 가구의 빈곤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한편, 본 연구의 자료구성에서 가구자료 중 소득에 대한 문항이 지난 해 소득에 대한 질문인 것을 고려하여 1차 개인자료 및 가구자료에서 분석에 활용할 변수를 취한 후, 소득자료는 2차 가구자료에서 가져오는 방식을 채택했다. 따라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총 연구 주기는 6개 년도가 된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균형패널 자료(Balanced panel data)를 활용할 것이므로 00년에 연구대상에서 누락되었다가 01년에 다시 응답한 사례와 같은 경우는 분석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힌다. 또한 분석방법으로는 고정효과 모델(fixed effects model)을 활용한 패널분석을 이용한다. 특히, 종속변수가 0과 1이므로 로짓모형을 활용한다.

4. 연구결과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으며, 성별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모형은 <표 2>와 같다.

<표 1> 노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체 모형

설명변수	전 체	
	계수	S.E
성별	.1600	.4632
연령	.0859**	.0246
학력	-.2075**	.0502
(배우자 없음) 혼인상태 1	-.7913*	.3700
자산	-.2826*	.1255
건강상태	-.2016	.1474
(중소도시) 거주지역 1	-.9124**	.3351
가구주 근로기간	-.0133	.0166
부인의 근로기간	-.0009	.0200
가구주의 직업(농어업)		
분류불가 (여성일 경우 가사)	-.7745	.5764

설명변수	전 체	
	계수	S.E
사무직	-1.9955*	.9598
판매·서비스직	-1.5579**	.5569
전문관리직	-.8890	.8833
기능직	-.9627+	.5379
단순노무직	-.6209	.5645
상수	-2.1147	1.7991
사례수	1080	
Number of groups	333	
Wald Chi2	93.71**	
Log likelihood	-536.83	
sigma_u	2.1021	
rho	.5732	

* 주: +=P<.1, *=P<.05, **=P<.01

<표 2> 노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특성에 따른 분류

설명변수	모형 1(남성)		모형 2(여성)		모형3(배우자 있음)		모형4(배우자 없음)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성별	-	-	-	-	.2302	.5501	-.3852	1.3911
연령	.0563	.0420	.0876**	.0314	.1047**	.0368	.0577+	.0322
학력	-.2592**	.0854	-.1692*	.0679	-.2678**	.0691	-.1129	.0740
(배우자 없음) 혼인상태 1	.0951	.7520	-.8998+	.4668	-	-	-	-
자산	-.2632	.1783	-.2776	.1739	-.1070	.7920	-1.3684**	.5222
건강상태	-.0256	.2539	-.2712	.1886	-.0431	.1954	-.4046+	.2257
(중소도시) 거주지역 1	-1.0556+	.5557	-.7883+	.4207	-1.0841*	.4469	-.4516	.4848
가구주 근로기간	-.0100	.0203	-.0232	.0243	-.0269	.0190	-.0015	.0553
부인의 근로기간	-.0422	.0345	.0142	.0274	-.0066	.0237	-.0080	.0586
가구주의 직업(농어업)								
분류불가 (여성일 경우 가사)	-1.1181	.9868	-.6464	.7477	-1.4502**	.7920	-.0071	.8399
사무직	-1.6146	1.5756	-2.8206	1.8025	-2.0176+	1.0729	-2.8920	2.2365
판매·서비스직	-2.6490*	1.0365	-1.2980+	.6753	-2.9220**	.8452	-.7832	.7018
전문관리직	-1.2044	1.2680	-.5148	1.2879	-1.3666	1.1754	-.7259	1.3504
기능직	-.7311	.7646	-1.6322*	.8208	-.5725	.6829	-2.6876**	.9121
단순노무직	-.6234	.9379	-.0232	.0243	-.6294	.7949	-.8499	.7474
상수			-2.2928	2.3079	-3.9223	2.6218	.6609	2.2983
사례수	406		674		684		396	
Number of groups	129		204		218		122	
Wald Chi ²	34.27**		56.68**		60.06**		34.50**	
Log likelihood	-198.85		-332.85		-332.46		-188.12	
sigma_u	2.0730		2.1027		2.1535		1.6302	
rho	.5664		.5733		.5850		.4468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노인으로만 이루어진 가구를 대상으로 그들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이를 총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패널분석을 활용하고, 선행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설명 변수를 투입하여 노인의 특성별로 각 영향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연령, 학력, 혼인 상태, 자산, 거주 지역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가구특성과 함께 과거의 직업력이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특히 ‘좋은 일자리’에 종사한 경우 노인 빈곤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이러한 일자의 경우 안정적이고, 소득이 높을 뿐 아니라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노후 계획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에서도 기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노인의 특성별로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성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여성은 남성에 비해 혼인 상태와 연령이 중요한 변수였으며, 배우자의 유무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산과 건강상태가 중요한 변수로 도출되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여성 노인의 빈곤이 혼인 상태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이들의 빈곤이 배우자(남성)의 특성에 의존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우선 과거의 직업력이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노후 상황만을 고려한 노인의 탈빈곤정책은 사후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들이 노인이 되기 이전, 즉 청·장년기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자산을 축적하고, 노후의 주요 소득원 중 하나인 사회보험 및 퇴직금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준다.

첫 번째는 미래에 노인 빈곤층이 될 위험이 높은 현재 청·장년층과 관련된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빈곤의 질적 변화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근로빈곤층’이다. 이들은 대부분 저숙련 노동자로, 노동시간 부족과 임금률 감소로 인한 낮은 임금, 실업과 취업의 반복 경험 등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 양극화와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근로빈곤층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현재 근로빈곤층이 노인이 되었을 때 빈곤에 빠질 확률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미래의 잠재적인 노인 빈곤층에 대한 예방적인 탈빈곤정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 자활사업 프로그램과 직업훈련의 내용 전환 및 일자리 질의 유지·향상이 요구되며, 이들의 근로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지원정책으로 근로소득보전세제와 같은 정책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공적연금제도와 관련된 것이다. 노후 빈곤을 예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득 보장 정책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보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고용기간과 임금수준에 따라 급여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수의 불안정한 노동계층에게는 배제되어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생각하면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노후 빈곤을 예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거나, 기존의 경로연금 수준을 상향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법을 통해 국민연금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이 공적연금제도를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는 방안들이 요구된다.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 배우자의 유무가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들은 대부분 노동경험이 없기 때문에 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공적연금제도로부터 배제되어 있으며, 따라서 배우자의 상황에 따라 이러한 제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의 유무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구인회·손병돈. 2005.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1990년대 후반기의 변화 추이와 변화 요인”. 『한국노년학』. 25(4): 35-52.
- 정경희. 1999. “노인의 경제상황과 정책적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9: 7-29.
- 최선화. 1999.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노인의 빈곤원인”. 『한국가족복지학』. 3: 1-25.
- 최옥금. 2005.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이동에 관한 연구: 임금일자리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5(1): 1-42.
- 최현수·류연규. 2003. “우리나라 노인빈곤 동향 및 빈곤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3): 143-160.
- 최희경. 2005. “빈곤여성노인의 생애와 빈곤 형성 분석”. 『노인복지연구』 27: 147-174.
- 홍백의. 2005.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4): 275-290.
- McGarry K., and Robert F. Schoeni 2005. "Widow Poverty and Out-of-Pocket Medical Expenditures near the End of Life." *Journals of Gerontology*. 60:s160-s168
- McLaughlin D. K and Leif Jensen. 2000. "Work History and U.S Elders' Transitions into Poverty." *The Gerontologist* 40(4): 469-479.

- Rupp K., Alexander Strand, and Paul S. Davies. 2003. "Poverty among Elderly women: Assessing SSI Options to Strengthen Social Security Reform." *Journal of Gerontology* 58B(6):s359-s368.
- Schiller R. B. 2003. *The Economics of Poverty and Discrimination*. Prentice Hall.
- Schulz James H. 2001. *The Economics of Aging*. Auburn House.